

예술과 기술로 비춘 현대사회와 인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융합 전시 현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1관에서 지난 8월부터 선보이고 있는 '환상극장'이 기존 영상과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관람객들에게 인기다. 21세기 산업용 로봇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과 미디어아트로 융합돼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펼쳐내는 신기한 전시에 발걸음이 모아지고 있는 것. 예술과 기술의 결합은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며 말 그대로 환상의 세상을 구현해 보여주고 있다. '환상극장' 외에도 ACC에서 만날 수 있는 독특한 전시 현장을 소개한다.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지구의 기억'

'환상극장'이 만화경으로 꾸민 공간에서 로봇 암이 안내하는 찬란한 빛의 여정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라면 이어지는 복합2관에서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지구의 기억(REMEMBER THE EARTH)'이 열리고 있다. 내년 3월 정식 상설운영할 ACC 미디어아트 체험관 조성을 위한 시범 전시다.

'지구의 기억'은 새로운 지질시대, '인류세'를 주제로 지구와 환경의 변화를 체험케 한다.

인류가 파괴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구환경과 맞서 싸우면서 환경훼손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 현재 인류 이후의 시대를 '인류세'라고 한다. 신생대 제4기의 홍적세와 현세인 충적세에 이은 새로운 시대다. 인류에 의해 벗어난 시대가기 때문에 인류라는 말이 붙었으며, 2000년 안팎을 인류세의 시작으로 본다.

프로젝션 맵핑과 공간을 아우르는 미디어 상들리에(LED Strip)로 새롭게 구현된 상상원 아시아(The Circle) 원형공간에 들어서면 관람객은 바다, 구름, 빙하, 숲, 사막 등 지구의 거대한 자연 속에 빠져든다.

거대한 미디어 상들리에는 다양한 색으로 순환하는 빛을 통해 인류와 지구의 변화를 보여준다. 바닥의 거대한 원형은 지구의 변화와 순환의 시간을 상징한다.

2층 미디어룸에선 터치모니터를 통해 인류의 행위에 따른 지구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 자연과 인간, 나아가 지구와 인류의 관계를 새로운 시선으로 경험해 보게 한다.

미디어아트 영상은 지구의 자연·문명·환경오염을 20분 간격으로 상영하는데, '공존' 또는 '무(無)'의 상태를

앞둔 인류에게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선순환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전시는 오는 10월 24일까지.

◇통제사회 명암 예술적 고찰 '빅브라더'

마스크 의무착용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디지털화된 일상, 자발적인 복종과 감시, 통제를 묵인하는 사회 시스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복합6관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전은 현재 우리의 자화상 같은 전시다. '다시는 결코 혼자일 수 없음에 대하여'라는 부제에서 느낄 수 있듯 현대사회 인간의 모습은 모니타나 거울, 감시카메라에 의해 끊임없이 통제되고 있다.

동시대 아시아 예술가들이 감시 통제 사회의 명암을 예술·인문학적으로 고찰했다. 8명의 작가들은 전 세계를 관통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는 감시 통제에 나서지만 개인 사생활 및 인권 침해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은 커졌다며 지구촌 각계각층의 논의를 가시화한다.

필리핀 작가 아이사 흑손의 '동물원'은 8시간 동안 갇힌 5명의 영상을 아가 이브로 보여준다. 갇힌 인간의 행동이 동물원의 동물을 관찰하는 느낌과 흡사하다.

TV 조정하면 같기도 한 '수천의 리틀 브라더'는 잘못된 정보로 테러리스트 명단에 올라 체포된 방글라데시 출신 미국 교수인 하산 엘라히의 작품이다. 그는 감시카메라에 찍힌 수천장의 사진을 웹에 올려 그를 감시하는 이들을 역감시하는 듯 작품을 구성했다.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덩 위펑은 베이징 곳곳에 있는 CCTV를 조사했다. 베이징에는 인구 2.5명당 1대 꼴로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작품 '사라지기 운동'은 감시카메라의 반경에서 '사라지기' 퍼포먼스를 벌이는 참여자들의 모습을 비디오에 담아 보여준다.

이밖에 지역 작가 이연숙, 임용현, 아자야(상하이), 정 말러(홍콩)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작품을 통해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고, 다수가 소수를 감시하는 사회가 공존하는 우리 삶의 명암을 아시아 작가들의 시각에서 전달한다.

전시를 기획한 ACC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코로나19와 병존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사회 공익과 개인 존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다시는 결코 혼자일 수 없는 현실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시는 오는 11월 14일까지. /이연수 기자



'김환기를 추억하다'

신안 김환기 고택서 우용민 신작 선포

'김환기고택의 달과 별' 주제 12월 1일까지 수목 회화 12점

신안군 안좌면 김환기고택에서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국화가 우용민의 '김환기고택의 달과 별' 전시회가 열린다.

우용민 작가는 지난 7월 고택 인근 옛 김환기화실에서 전시중인 안혜경 작가의 전시를 보기 위해 김환기고택을 방문했다. 작가를 기다리는 동안 마당에 앉고 고택을 그렸는데 지나가던 초등생과 여러 신들이 "잘 그린다"고 칭찬을 해 내친김에 현장에서 한 점을 더 그렸다고 한다.

어르신들의 칭찬이 기분이 좋았던 작가는 작업실에 들어가 환기고택에서 그리던 작품을 꺼내어 손질하는 한편 마니안 섬에서 태어나 국민화가가 된 김환기와 그의 예술을 생각하면서 한 점 한 점을 그리다 보니 어느새 12점을 완성했다고 한다.

우용민은 조선시대 화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SBS월화 드라마 '홍천기'에 그림 그리는 '손' 대역으로 출연 중이다. 작가는 손은 극중에서 주인공의 아버지 흥은

우와 심대우의 손으로 출연했다. 김환기 고택을 방문한 날도 전날 종일 촬영을 했었고, 전통수목화가로 외로운 길을 가던 작가에게 오래전 선인들의 이야기도, 김환기의 삶도 예상치 못한 무게로 다가왔다고 한다.

국가민속문화재 제251호인 김환기고택은 김환기가 태어난 생가로 1920년에 지어졌다. 당시 도선사업을 하던 김환기 부친은 백두산에서 소나무를 옮겨다가 고택을 지었다. 고택은 당시에는 보기 드물게 천정이 높은 엄청난 크기의 유일한 기와집이었다고 전해진다.

고택 안채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으나 사랑채는 사라지고 김환기가 화실로 사용하던 별채는 김환기의 막내딸과 어린시절 소꿉동무 사이인 이삼단 할머니가 살고 있다.

고택은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이후에도 굳게 문이 닫혀 있어 예술인과 방문객들을 안타깝게 했었다. 지난 4월 신안문화사랑협동조합에서 고택과 인근 빈집에서 '달빛, 바다에 빠지다'전을 개최하면서 사람들이 북적이게 됐다. /이연수 기자



관람객들이 참여해 롤러와 잉크로 '404'라는 숫자를 벽에 칠하는 중국의 아지아오와 쉬원카이 작품 '40404404'.

대동전통문화대상 후보자 신청하세요

대상·특별상 등 15명 시상

제3회 대동전통문화대상 후보자 공모 접수가 10월 한 달간 진행된다. 대동전통문화대상은 전통문화·예술 분야에 오랫동안 매진해온 장인에게 시민들의 후원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문화단체인 (사)대동문화재단이 2019년 제정해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총상금 3,000만 원 규모로 대상 3명과 특별상 15명을 시상한다. 대상은 문화유산, 미술, 공연 부문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시상한다. 특별상은 평생 자기 분야에서 매진하며 전통을 지키는 장인에게

수여하는 한우물상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킬 미래의 인재에게 수여하는 미래인재상(청소년부, 청년부)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기 추천 및 타인 추천을 통해 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대동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우편·방문·이메일 중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서류는 대동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된 수상자는 오는 12월 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수상하게 된다. 문의 062-461-1500. /이연수 기자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중

전기종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10년 사용), 가정용 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 주행거리 100km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 주행거리 90km

안전필수 전복방지 (틸팅)기능
최대속도 60km / 주행거리 50km



에코 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 3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 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상담 061) 352-3010 내선 2번
문의 061) 872-8880, 1

고흥지사 : 010-2548-7111
광주지사 : 010-3925-2181
영광지사 : 010-3925-2181

광양대리점 : 010-5355-1292
나주대리점 : 010-3626-3848
함평대리점 : 010-2602-6051

장성대리점 :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 010-2450-1954
전남 서부권역 : 010-3647-9709

전국대리점·취급점 문의
010-2034-0141